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소송으로

전북도·익산시와 민사조정 결정
보상액 157억→80억 하향 불구
주민·지자체 간 견해차 못 좁혀



지난해 8월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익산시는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가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결정되면서다.

지난 31일 익산시와 장점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3차 민사조정은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사조정위원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익산시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조정을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보상액 157억원을 80억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가 기존 50억원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액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민 측 요구를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측은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조정 불성

립으로 소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 측은 익산시의 불성실한 조정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조정안을 변경 제시했는데 익산시는 이 안에도 응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며 "의료비 보장 한도 상향은 아픈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간사는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고통이어서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이중 14명이 숨졌다.

비료공장에서 담뱃연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미륵사지·내장산 등 전북 6곳 문체부 '한국관광 100선' 선정

익산 미륵사지 등 전북지역 관광지 6곳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북지역 관광지는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정읍 내장산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지방정원(정읍 구절초테마공원),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전주 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등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한국관광 100선'은 올해 5회째로 전주한옥마을은 5회 연속(2013~2022년), 진안 마이산과 내장산 국립공원은 4회 선정돼 한국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익산 미륵사지와 옥정호 구절초지방정원(정읍구절초테마공원),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미륵사지는 '2020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주목됐다.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은 꽃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 여유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떨치는 향기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은 젊은 층에게 이미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명성이 나 있는 곳으로, 건축과 미술작품의 미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익산 미륵사지.

익산시 지역화폐 전국 최대 혜택 제공 설맞이 이벤트...20% 할인 적용 100만원으로 상향

익산시는 지난해 초 철폐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출시한 지역화폐 '익산다리로움'을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익산다리로움'을 2월 한 달 간 개인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2배 확대 운영하는 설명절 특별이벤트를 시행한다. 100만원을 충전 후 전통시장 및 골목상

권에서 사용한다면 총 21만원(충전시 10% 10만원,페이백 10% 10만원, 이벤트 당첨금 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당 2명이 다리로움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42만원의 설명절 특별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또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다리로움 카드 이용) 인증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지역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익산다리로움카드를 이용해 3만원 이상 결제한 후

익산시청 홈페이지, SNS 등에 접속하고 인증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다리로움 적립금으로 1만원을 충전 지급하며, 적립금은 2월 29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다리로움 혜택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시책으로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영광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1인 캠페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 강화

영광군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릴레이 1인 캠페인'에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하기 ▲불법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에 군민 참여를 독려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 및 배출저감대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이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1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메트라이프생명, 독거노인 온풍기 22대 기증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8일 순천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온풍기 22대를 기증했다. <사진>

이날 기증 행사에는 메트라이프생명 남부4사 업무 이수진 단장과 모근욱 부지점장, 제갈욱 설계사(FSR) 등이 참석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6월에도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시원한 여름나기를 바라며 써클레이터 선풍기 23대를 기증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앞서 '밀알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화가들이 직접 만든 그림엽서를 구매, 발달장애인 자립기금 마련에 보탬이 됐다. 또 그림엽서에 모든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해 훈훈한 정을 더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이번 기부행사는 순천뿐 아



나라 광주, 전주, 제주, 춘천, 구미, 안동, 포항, 창원, 청주, 울산, 원주, 천안 등 전국 13곳에서 진행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세얼굴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치안행정 역점"

임태오 장흥경찰서장

"4만여 장흥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 19 대응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임태오(52) 장흥경찰서장은 "늘어나는 농촌형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와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행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중립권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원년인 만큼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찰 본연의 업무



경찰서장,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역임한 정보통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서장은 보성 회천 출생으로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곡성정보통이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